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4호 【루게 제 22996호】 주제 99 (2010)년 2월 13일 (토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수령철사용위를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길주출도분국 당위원회 지도원 최희길, 부원 서용삼, 조선민예련합상사 조급직명위원장 장금석, 철도성 평양주재관리대 로동자대인 리성일, 황경남은 불붙는 집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율령촌 소행을 발휘하였다.
원산역 직방초급단체 동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총정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였으며 중앙검찰소 김명철도 2만여부리의 백도라지 등을 주체의 최고성지에 보내주었다.

철산대성수산물가공사업소 지배인 리태훈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업소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면서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것을 전사의 용당한 본분으로,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신의주주체혁명사무소 로동자 리영복, 열주군 읍 105인민반 오호남도 돌격대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였다.
덕천시 출판물보급소 로동자 백길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함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원호품을 성의껏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자각을 지니고 정경공업관리소 로동자 박영옥, 원산전직공장 로동자 김귀춘, 법동군 읍

93인민반 박성근은 지난 10여년간 인민군군인들에게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으며 박성근 남창협동농장 농장원 판은주는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인 특류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어 선군시대 청년의 고상한 품모를 보여주었다.
사리원시주일타이소 소장 김경숙과 종업원들은 보육요양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타이소의 물질적태도를 잘 갖추어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백두산위인들을 영현히 높이 모시고 따르며 군민대안들의 전통과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 온 꽃바구니를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 온 꽃바구니를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 온 꽃바구니를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예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15일 아부자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나이지리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태양절과 2월 16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 및 경축하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지리아인민민주당 신유원회 위원인 전국의 상인 부의장 이브라힘 만두가, 서기장으로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건국위원회 위원장 엠. 엠. 알하산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결세의 위인들이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채로운 행사

들을 조직 진행하기로 하였다. 2.16경축 스페리예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스페르틀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페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집회, 우리 나라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소개선전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2.16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가 1월 자카르타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체사회 총서기 리스미안토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부터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교자가족들, 여러 나라 단체들,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양지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에 있는 항일혁명투쟁 연교자가족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양지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교자 주보종의 딸 주위가족이 11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건강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국제우호연락회와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에서 공동명의로 축하편지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하편지와 선물을 심위정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이 8일 최진수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류병 중국 베이징항개불수강 장비제작유한 책임공사 총경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베루, 쿠웨이트, 카타르 인사들과 회사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김정일장군 배후친목회 위원장 에스투아르도 마르티네스 베레스, 쿠웨이트의 알 리라즈건설회사 총사장 아흐마드 알 까호라니, 알라미아건설회사 총사장 파르히 하지, 카나르무역 및 정부회사 집행국장 후함 아웨이스와 대상지배인 무함마드 알 바즈, 아랍청부회사 총사장 무함마드 에취, 알 다크로리, 알 유스라시르회사 총사장 짜미흐 오마르, 카타르의 평전정보회사 총사장 아브둘라흐만 하산 알 자베르, 프롬정부회사 집행국장 에르한 에커메이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나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장군님께 쿠웨이트 알 바얀민족무역회사와 가산 아흐마드 알 할리드회사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불세출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제 1 4 차 김정일 화축전 개막



절세위인을 우리라따르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 끝없이 흐르는 제 1 4 차 김정일 화축전장 - 김정일 화축전 화축전 시판에서 -

【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 1 4 차 김정일 화축전이 12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정일 화축전장 전 시판에서 《제 1 4 차 김정일 화축전》, 《2.16경축》이라는 글자와 축전마크가 새겨져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엄한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축전장에 모셔져있다. 축전장에는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와 인민군군인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들여 피운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 동포들, 남조선인민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들, 기업체들과 인사들, 화교들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장에 내놓았다. 위대한 선군명장을 우리러 따르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칭송의 마음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날 수만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개막식에는 최태복동지, 양형성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본사기자 김 광 혁 직 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중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중업원들의 결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최상의 특별감사와 선물이 참가하였는 열광적인 환호에 전담되었다. 태중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련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학, 직장장 최명호, 공장 김재삼, 초급당 비서 윤태국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비날론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분배되는 최상의 특별감사와 많은 료민기재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업소의 료민기재와 지원자들이 우리의 경제태도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나의 대화화기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내는데 대하여 대단한 영광을 표시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직방사장치에 딱 들어난 비날론설비들을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지체속을 팽팽 생산하고있는 기업소토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주시였으며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최상의 특별감사와 선물이 참가하였는 열광적인 환호에 전담되었다. 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울레공물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관철에 결렬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중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 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를 더 잘 꾸리고 로동자에술소활등을 활발히 벌려 일터마다에 혁명적만민이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기업소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로 건설된 비날론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한편 카바이드르건설을 비롯한 능력확장공사를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는것과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들의 만기동을 보장하며 화학제품의 가치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조선중앙통신】

《수령님, 비날론이 다시 쏟아집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은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지침이며 확고한 담보입니다.》

비날론!

내 조국의 번영의 력사가 깃들어 있고 절세위인들이 바쳐온 애국 헌신의 수많은 사연을 전해주는 비날론, 그 비날론이 드디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대경사가 되었다.

인민을 위한 위대한 강령을 이끌어 내어 현대적으로 꾸려진 2. 8 비날론연합기업소를 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사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비날론을 적정에 넘쳐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바로 그 순간에 하신 이런 심중의 말씀을 인민은 분명 심장으로 들었다.

인민들의 입은 문제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 그 거룩한 현세의 로고가 너무나 속속들이 깃들여있는 비날론이어서 우리 장군님 것처럼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신것 아니라.

참으로 비날론공업의 개척자이며 창립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명도사는 2. 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연혁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가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누구나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하고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어떻게 하나 푸시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고 비날론을 연구하고있는 한 과학자의 사업을 결심할때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 오른 과학자의 신상을 널리 하여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 주시고 전사의 그 엄혹한 환경속에서 외국과 사람들을 파견하여 실험기구에 사약들까지 사오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명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물에서 숨을 쉰다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허리머를 조이며 천리마대전군을 시작하던 그때에는 비날론공장건설을 발기시키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공장건설부지도 잡아주시었으며 과학자들에게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도록 담력과 배짱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

세상을 놀래운 《비날론속도》 창조에도 《모든것을 비날론공정장 건설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 일으키시며 몸소 그 전투를 조직지휘하신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가 깃들여있다.

보통한비련 생산공정들에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었던 로동자문화회관과 그쯔하게 갖추어진 후방기지에도 비날론공업의 창설과 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

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비날론공장 존공식에 나오시어 존공레프를 읊으며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를 잊지 못하고있다. 배꼽배에 토스메웃을 걸치고 살 아오던 우리 인민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와 열을 가지고 자력으로 우리의 섬유를 생산한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어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을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헌신의 력사가 합쳐되어있다.

전쟁 비날론은 어느 과학자의 발명품이 아니었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주체적비날론의 탄생을 안아오신 위대한 창조자이시다.

위인의 력사는 고결한 충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위대한 명도자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일찍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업소에 찾아오시었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는 기업소전변사의 갈피마다 뜨겁게 새겨져있다.

비날론공업의 창설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실 숭고한 념원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 8 비날론연합기업소에 10여차례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지금도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삼복칠강행군길에 기업소를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심장에 새기고있다. 기업소가 이룩한 현대화의 성과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어 높은 평가의 말씀도 해주시고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밝은 생산전망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업소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시는데도 앞장서나가도록

은 나라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도 세워 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영원 잊지 못해하고있다.

멀리 전진시찰의 길에서 기업소의 현대화추진정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국가적인 조치도 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을 떠나 어찌 오늘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백가지의 기초화학제품들을 평평 생산해내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기업소의 자랑찬 모습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시련의 광풍에 오래동안 주저앉았던 기업소,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져가던 기업소가 오늘 최진식비틀로 장비되고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현대화의 대화학공업기지로서 인민생활향상의 큰 몫을 맡아 해체기계를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결과이다.

이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두차례나 기업소를 찾으시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개건공사를 끝낸 건설자들과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하시고 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었다.

정령 주체비날론공업의 창시자 어버이수령님이시라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변모시킨 오늘의 대화학공업기지의 창건자는 다름아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중들에게 우뚝 세우주신 우리의 비날론공업은 나날이 그 위용을 파시하며 강성대국이 조신과 더불어, 이 땅에 최고급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을 더하고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애국 헌신의 력사를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작사 최준경
작곡 조경준



2. 폭포친다 폭포친다 비날론숨
폭포친다
수령님께 기쁨드릴 통장훈을
불렀다네
얼씨구 좋아라 절씨구 좋아
고생끝에 락이 왔네
장군님 선군으로 흥해가는
내 나라에

3. 물결친다 물결친다 주체비단
물결친다
온 세상이 부러움게 부귀영화
누려가세
얼씨구 좋아라 절씨구 좋아
사회주의승리로다
장군님 펼치시는 강성대국
내 나라에

비날론숨 풍년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설비관리를 잘하여 더 많은 비날론을! -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지금 레일을 따라 대고조의 한길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화학공업기지에서 우리의 비날론이 쏟아져 나오고 각종 화학제품들이 팽팡 생산한다는 소식에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백두의 눈썹을 부르며 천지의 얼음장이 터갈라지는 장쾌한 소리라도 같은 불의 피성이 심장에 들러온다. 시련의 두려운 장막에 가리워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던 비날론, 그 사연많은 비날론이 다시 태어났으니 이것이야말로 강성대국새봄을 알리는 시대의 환한 고고성이고 선군조선의 불우리가 아니겠는가.

단상 물우뢰

고결한 헌신의 세계가 눈같이 하얀 비날론에 그대로 숨배여 있고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울려 퍼지는 발동소리가 방사의 그르르른 동음에 그대로 실려있다.

결고 쉽게는 일으켜세울수 없는 거대한 화학공업기지를, 우리의 궁지가 자람인 주체적비날론공업기지를 끝끝내 밋쟁이로 단장시켜 인민생활향상의 진격로에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 그 나날에 바쳐오신 심혈과 남모르는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오라.

그렇다. 봄은 이렇게 온다. 세시대의 위대한 창조자, 진정한 봄의 주인에 의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오고야만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로 사나운 눈보라를 휘어잡고 빛과 열을 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속에 이 땅에 지상락원이 솟아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고 무성해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가주시고 꽃피워가시는 강성대국새봄은 오목목과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로 반드시 이어질것이며 어버이장군님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만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된다것을 2. 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희소식은 세상에 소리지르고있다.

밝아오는 휘황한 미래, 확고부동한 대고조의 승리를 봄우리는 힘있게 선언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선

은 나라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도 세워 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영원 잊지 못해하고있다.

멀리 전진시찰의 길에서 기업소의 현대화추진정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국가적인 조치도 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을 떠나 어찌 오늘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백가지의 기초화학제품들을 평평 생산해내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기업소의 자랑찬 모습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시련의 광풍에 오래동안 주저앉았던 기업소,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사라져가던 기업소가 오늘 최진식비틀로 장비되고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현대화의 대화학공업기지로서 인민생활향상의 큰 몫을 맡아 해체기계를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결과이다.

이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두차례나 기업소를 찾으시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개건공사를 끝낸 건설자들과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하시고 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었다.

정령 주체비날론공업의 창시자 어버이수령님이시라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변모시킨 오늘의 대화학공업기지의 창건자는 다름아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중들에게 우뚝 세우주신 우리의 비날론공업은 나날이 그 위용을 파시하며 강성대국이 조신과 더불어, 이 땅에 최고급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을 더하고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애국 헌신의 력사를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CNC화가 실현된 흥겨운 일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이것이 현대의 자력갱생입니다.》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인 2. 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오늘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새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고있다.

1단계 개건대상들이 앞다투어, 초산생산공정은 물론이고 2단계 개건공사의 중요공정들이 초산비날론 및 정류계통, 중합계통 등 비날론생산의 전반적공정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수단들과 수형기구들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조종되고있다.

2단계 개건대상들이 앞다투어, 초산생산공정은 물론이고 2단계 개건공사의 중요공정들이 초산비날론 및 정류계통, 중합계통 등 비날론생산의 전반적공정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수단들과 수형기구들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조종되고있다.

2단계 개건대상들이 앞다투어, 초산생산공정은 물론이고 2단계 개건공사의 중요공정들이 초산비날론 및 정류계통, 중합계통 등 비날론생산의 전반적공정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수단들과 수형기구들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조종되고있다.

이 안전한 화학반응상태 유지할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일정한 한계내에서 유지조절된다. 조작공들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르는 원료투입량과 반응속도의 조절이 제기되면 마우스로 컴퓨터화면상에서 조절변들과 스위치들을 조작할때뿐이다.

결국 종전에는 생산공정의 반응량과도 따름, 복잡한 배관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해당 지령에 따라 밸브들과 시동 스위치들을 다루던 기대감시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대화학공업기지에서 이룩된 생산공정의 CNC화의 성과는 이 곳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지닌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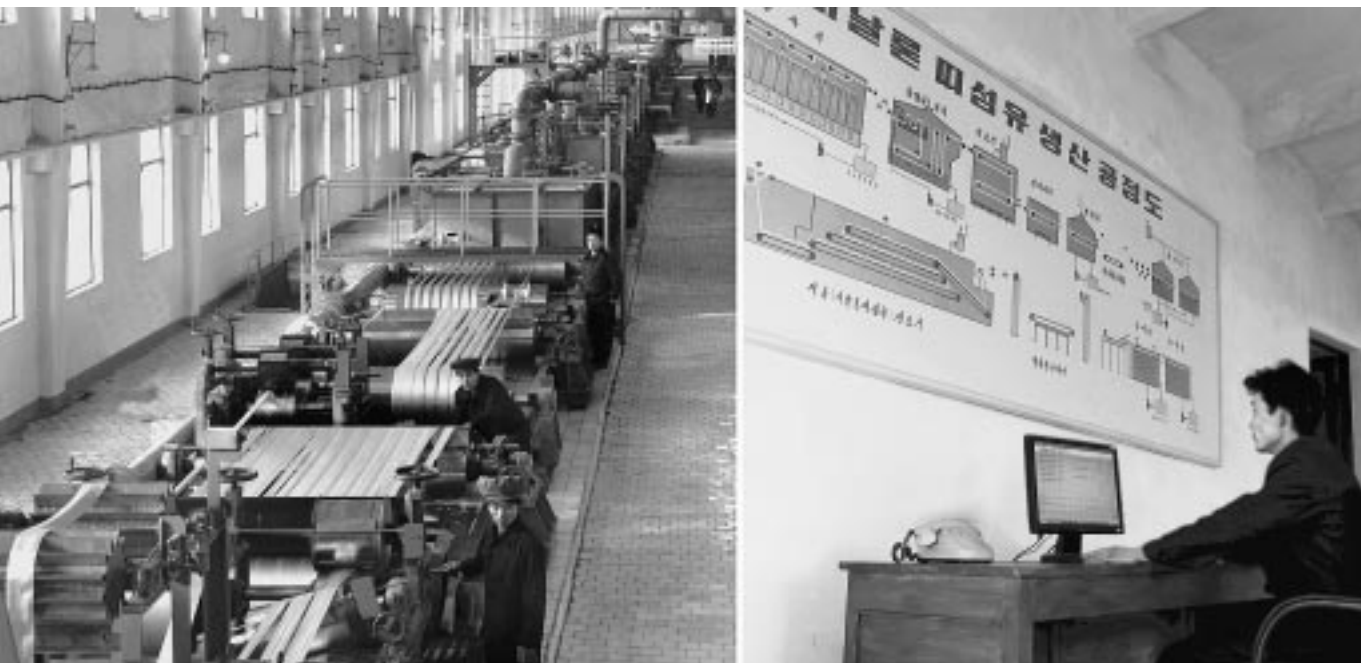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의 CNC화를 그 누구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관념에서 기술자들의 사업을 힘있게 떠맡아 주었다. 강영용, 문종근동무를 비롯한 자동화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화학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되는 CNC화의 초행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새롭게 일떠서는 비날론생산공정의 구조를 높이 추켜든 변형기

어 총체적인 체계설계를 혁신적으로 하고 오랜 기능공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현장조건에 맞으면서도 다루기도 쉽고 호환성이 잘 보장된 조종프로그램들을 자체의 지혜로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은 틀렸든 개건공정장에 몸을 꼭 잠그고 수감 및 수행요소들의 합리적배치와 조종케이블의 편결작업, 시운전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복잡한 화학반응공정에 대한 전방적인 체계조종을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CNC화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주체화의 구조를 높이 추켜든 변형기

업소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작은 자금으로 중요생산공정현대화의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되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공정CNC화의 성공적실현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신이 낳은 자랑할만한 성과로서 칭찬을 들과할때 대한 공동사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올해의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현대적으로 꾸려진 생산공정을 따라 비날론이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6호 3월 9일 (2010)년 2월 8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말려진 혁명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인민직공립공장 영양 입가루직장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인민직공립대학 기계조종공학부 덕천지구관향연합기업소 덕천주택건설대 수용직물공장 배천군 온천리판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3대혁명붉은기 평양교무공장 협동분공장 모란배스사업소 인흥대 대동강구역도시미화사업소	민경대우공장 제봉1작업반 동대원구역출판물보급소 안주시 운송협동농장 남흥정년화학연합기업소 견제직장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주강직장 개천관향 서재경 제관3중대 덕천관향 5경 제관2중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주원로직장 강서기관부속물공장 1가공직장 남포과수농장 제7작업반 의주군식료공장 주장교회서평산 소재직장	신대우수산사업소 빈도원산사업소 성하작업소 배천군군민기초식품공장 원천과수농장 제16작업반 연안군 화양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사리원영에군인제복공장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물목장 봉산은하리복공장 제1작업반 린산군산림경영소 음악묘작업반	조선청년총합동맹 우시군총아공장 우시군세멘트공장 회천시편의봉사관리소 남천종합작업반 원산지구공장 제화직장 창도군 지석협동농장 남새작업반 고산과수농장 위복분장 1작업반 경성애자공장 2애자직장 승리화학연합기업소 전기직장 함경북도수산물 및 남새사업	판리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압축기직장 고원관향 윤만경 전자수리중대 흥남계약공장 제4합성직장 함흥시 화성구역기계제작소 상봉광산 풍배아강 평포리공장 선적직장 신강수산협동조합 자원조직작업반 평양교차대 승무1중대 남포철길대 대안철길소대 신안주철길대 신안주복철길소대 고산철길대 복제철길소대 국립교향악단 중앙경영대학출판반 평양안고직장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출판사 중앙교육출판물공급사 평양교예단 2창작단 락원봉화리복공장 제4작업반	3중영예의 붉은기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중학교	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평양명훈소학교 청진시 수남구역 청남중학교	김주군 봉양중학교 영예의 붉은기 해주시 양사소학교 자성군 윤봉중학교
---	---	---	---	--	--	---	---	--

시류를

2월의 해 빛은 이 세상 한 끝까지

김은숙

백두밀영고향집 우러르며

축원의 꽃들결 홀려홀려
이 세상 한끝까지 끊어지는 2월
이 아침
내 지구의 한끝에서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
저 하늘 구름과도 내 마음 달려가는
백두밀영고향집

네 그리도 맑고 푸르던것은
강성하는 내 조국 오늘의 모습을
하늘의 별로 새겨안기 위해서가
아니였더냐
고향집 추녀아래 흐르는
2월의 환희를 안고
그날의 투사들도 축복의 빛을
들어
세월에 부친 편지인양
밀영의 구호나무에 그 감격을
새기지 않았던가

기다려 오늘도 우릴 기다려
열려있을 문
장군님의 손길에 따스히 어렸이는
그 문고리 안아보는 마음속에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이여
뜻깊은 2월의 그날 이 고향집은
오늘과 매일의 먼먼 세월까지 다
안고 솟아있었구나

조국의 향기

그 누구나 한번 보면 발걸음 못 떼고
보고보고 보아도 또 보고싶어서
산사람 바다사람 물결처럼 흥성서는
어기는 조신의 수령에졸진장

말해다오 소백수야
백두의 태양이 솟은 그날
네 물결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봄노래를 읊은것은
반복이 꽃피는 봄세상
태양이 가꾸는 인민의 락원
오늘의 환희를 비껴안기 위해서가
아니였더냐

우러러 숭엄한 백두정경화복속엔
백두산천지를 파도쳐설레이고
정일봉의 노을은 붉게도 타누나
비로봉의 일만경치 병풍으로 펼
쳐지고
향산의 기암절벽 오를수록 승지
로다

말해다오 백두의 하늘이어
태고이끼던 쌍무지개를 창공에
떠워
이 나라의 대통운을 알리던 그날

슬기로운 민족의 재주가 어려웠는
비취색 고리자기 눈부리얏고
청실홍실 수에우엔 백학이 너울
너울
진주보석 별빛타고 은하수 내리네

땀백만년인지 몇천만년인지...
너도나도 위인의 그 인품에 매혹
되어
사람들 물결처럼 흘러드는 전시장
내 조국 빛내시는 장군님 우러러

평양 날씨
한여름의 해벌이
창가에 아롱지는 남방의 이 아침
오늘도 조국의 소식과 함께
방송원의 목소리에 실려오는 평양
날씨

생각의 시작 생각의 끝은 고향집
뜨락에 닿아있구나
조선의 태양은 백두밀영고향집
대양과 대륙넘어 그 어디에 있어도
우러러 보이는 태양의 고향집
새기와 새기를 비쳐주려니

평하 30℃
얼마나 추위가 조국은...
이런 강추위속에서도
우리 장군님은 최첨발전소건설장을
찾으셨는지
이런 때는 이곳의 여름철을
내 조국의 하늘가에 펼치고싶은
마음

아 지구의 한끝
여기서도 보이는 집
여기서도 안겨사는 집
빨찌산의 그 기틀집에
내 운명 내 마음 두고 살아
조국떠나 아득한 이 태평양기슭도
정녕조 정녕 타향이 아니여라

오늘같은 날에는
부디 눈보라를 그어가지셨으면
이제 더는 갖은날 험한 길 아니
가시고
좋은 날 좋은 길만 가지셨으면...

향기

천연물은 다들여 육같이 희되희고
육쟁반에 담은 구슬 수정처럼 구
우는듯
이리 비껴 저리 비껴 사진에 담느라
바쁜 모습들
절정속을 걸으며 저녁해를 지우
려나

간절한 마음은 구름넘어 저 멀리
산간이 쌓이는데
눈가엔 어려오는 성에 불린
아전차
북방의 눈보라길 달려고달려
일떠서는 발전소엔재우에서
인민의 웃음꽃핀 매일을 그려보실
장군님의 그 모습

조선치마저고리 펼쳐입은 우릴
보고
일타루어 금강의 선너라고 하
는 말
남방의 너인들 모두모두 부러워서
그 옷 한번 입어보면 평생소원
풀겠단다

간절한 마음은 구름넘어 저 멀리
산간이 쌓이는데
눈가엔 어려오는 성에 불린
아전차
북방의 눈보라길 달려고달려
일떠서는 발전소엔재우에서
인민의 웃음꽃핀 매일을 그려보실
장군님의 그 모습

슬기로운 민족의 재주가 어려웠는
비취색 고리자기 눈부리얏고
청실홍실 수에우엔 백학이 너울
너울
진주보석 별빛타고 은하수 내리네

강성대국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야
내 나라 흥해가니 동이 트누나
우리 위성 하늘날아 돈들라
리요
철갑상이 바다가니 돈들라리세
어깨춤에 노래절로 가락넘치는

우리 동등 돈들라리 강성대국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야
살기 좋은 락원이니 동이 트누나
우리 평양 새집들이 돈들라리요
두메산촌 선경마을 돈들라리세
전설의 무룡도원 이 땅에 꽃피
우리 동등 돈들라리 강성대국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야
민족의 태양 빛나 동이 트누나
반만년의 경사로운 돈들라리요
해빛밝은 천만세월 돈들라리세
대대손손 복을 받아 길이 번영할
우리 동등 돈들라리 강성대국
돈들라리

철벽의 성세우에 돈들라리요
원수이긴 승전고의 돈들라리세
이 세상이 그 무엇이 강하다
더냐
우리 동등 돈들라리 강성대국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 돈들라리야
민족의 태양 빛나 동이 트누나
반만년의 경사로운 돈들라리요
해빛밝은 천만세월 돈들라리세
대대손손 복을 받아 길이 번영할
우리 동등 돈들라리 강성대국
돈들라리

꽃에 비낀 마을

내 맘 담아 붉은 꽃 한송이
내 맘 담아 연분홍꽃 또 한송이
우리 마음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어버이 우러러 삼가 엮는 꽃
바구니

이 하나의 꽃바구니에 세계지도가
펼쳐진듯

조국떠나 먼곳에서 맞는 2월은
간절한 그리움에 류달리 생각도
깊어
꽃중에도 제일 고운 꽃을 골라서
너도나도 피워온 그리움의 꽃

오대양륙대주의 꽃들이 오직
한분 한송이를 받거
더더욱 빛깔고운 꽃 향기로온 꽃
한송이송이 한송이송이 송이송이
가슴속에 품는 소망 더 붉게
물들이여라

떨기떨기 피어오는 해바라기는
태양만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
홍모의 정을 가득 담아
그 모습 아름다운 붉은 장미,
무지개꽃

해와 달이 무궁토록 이 조선 빛내
주시며
그 언젠나 봄날의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라
우리우리 소원담아
우리우리 넘진담아 삼가 엮은
꽃바구니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는 심정으로
엮는 꽃
천연원시림 다 밟고 안대스산들
기룰 다 돌아
세상에 진귀한 꽃 세상에 희한한
꽃 다 담으니

아 우리의 운명이며 미래인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러러 우러러
천백가지 꽃들에 하나의 녀원
담아
인민은 삼가 뜨거운 축원을 드리
옵니다

제17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개막

【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7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개막되었다.



축전은 정치, 경제, 예술, 체육축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막식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개막사를 하였다.

남김없이 파시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사외주의청년동맹가》가 주악되는 속에 축전기발이 계양되고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청소년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선군사상, 선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그날의 감격을 감동깊이 형상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웠는 혁명의 불

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청년전위들의 확고한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모습과 강성대국의 매일을 향해 폭풍처럼 달려가는 열렬충혼들의 신심을 반영한 남상5중창 《변이 나는 내 나라》, 혼성중창 《강성대국이 보인다》는 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 정초부터 들리는 대고조격전장들에 처 몸군군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혁명으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청년전위,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과 백두산선군정

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투장소에서 청년들 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을 돌

등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하는것과 함께 군중문화예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민동지와 관계부

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주요 무관단을 위하여 1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고수할것이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 군대와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무관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연설하였다. 그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무관단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충실하고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무관들의 나라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무력부에서 주요 무관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주요 무관단을 위하여 1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춘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무관단장들과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함일대장과 반미성전의 불길 속에서 무비의 단력과 배양, 승리를 지니시고 성장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특출한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무관들의 나라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제14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주요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2일 제14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심과 뜨거운 지성에 받들려 활짝 피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지부락, 조지부 상무부부장, 대외연락부 부부장, 조지부 비서장장

【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리기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인척하단이 12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척하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지인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니인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지인 김혁진선생님과 어머니인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척하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서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혁명생애와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이날 척하단성원들은 제14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호모심에 떠받들려 활짝 핀 인위칭송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2.16 경축연회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지부락, 조지부 상무부부장, 대외연락부 부부장, 조지부 비서장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주요 무관단을 위하여 1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춘동지가 연설하였다.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우며 강력한 군사적힘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조중친선협조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리원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지부장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조선동지들과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먼저 호금도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중국동지들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

지해로운 조선인민이 새해공동사실에서 제시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올해를 국가발전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로 만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업무를 실현하는데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그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방정책이라고 하면서 조선동지들과 함께 각 분야의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친선협조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앞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사무총장 일행이 떠나갔다. 유엔 사무총장 특사인 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과 일행

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

군과 주요 유엔상주조정자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부사무총장일행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전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고 시대와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전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고 시대와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전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고 시대와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전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고 시대와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전대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주시고 시대와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올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는 혁명적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나라와 인민들이 민족적 및 국제적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시대적요구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세계자주화위업에 불가불적으로 련관되어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해나갈 때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실현되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담보된다. 이로부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국제적 임무로 된다. 자주화된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성을 구형으로 하는 인류의 본격적요구로 생성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세계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혁명의 앞길에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끄떡하지 않고 확고한 자주의 원칙에서 모든것을 대하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해왔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나라는 대외활동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의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

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대외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조선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오늘 그 누구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어찌지 못 하고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올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박책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의 성세로 그 위용을 떨칠수 있었다. 혁명실천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의 담보가 있다. 이것을 확고해주고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가야 한다. 이것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담보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의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세계자주화위업이 앞당겨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수행하자면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혁명적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감에 있어 자주의와 민족적 단결과 민족적 단결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케 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인민들이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 과정에는 실패와 굴절도 있었고 가슴아픈 손실도 있었다.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지 못한데

그 주되는 원인이 있다.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는것은 혁명 투쟁의 근본원리이며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력사의 반동들은 인민대중이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며 따라서 어떻게 해서나 그것을 배방하려 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어느 한 지역에 저들의 파괴국가나 단체들을 만들어놓고는 그 지역의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과 단체들이 서로 시기질투하도록 리간을 조성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감행되고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나라들을 고립시키므로써 자주력량의 국제적단결과 반대성을 약화시키는 술책도 쓰고있다.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강화를 휘둘러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을 전복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어떤 후과가 차례지는가를 보여주기 진보적인인민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을 갖은 수법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조장책화시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비열한 분열책, 리간책등으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분열과 대립현상이 나타나고 지어는 무장충돌과 전쟁사태까지 일어나고있다. 현실은 자주성을 지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에 있다.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이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 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갖은 모략적인 방법으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등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결과 국제적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현실이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등은 그 특과 깊이에 있어서 류레없이 교활하고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해당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고 반목과 불신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각종 모략기구와 도구를 갖추어놓고 끈질기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등에 즈음이라도 각성을 늦추면 안된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모략에 걸려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나라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등에 경계심을 높이고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반제국주의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혼자서는 그 어떤 일도 할수 없다. 제국주의반동들이 국제적으로 련관되어 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활동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과정에 국제적단결이 이룩되고 공고화된다.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는것은 오늘 하나의 시대적주제로 되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반제국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자주화위업의 전진이 다그쳐지고있다. 반면에 지배주의 세력은 더욱 악화, 고립되어 날로 파멸의 방향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세계자주화위업은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된 진보적인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채 일 출**

민족적자존심은 자주적발전의 원동력

올해공동사설에는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할 우리에게 민족적자존심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고 밝혀져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매개 나라와 민족이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절박한 시대적요구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으며 민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상감정이다. 자기 민족이 앞만 못지 않는다는 민족적자존심,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지향하는 인민들모두가 지녀야 할 숭고한 정신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체화된 세계》요, 《초민족적인 사회》요 뭐요 하면서 매개 나라와 민족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기초한 민족적자존심을 허물어버리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는데 공적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그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에 의해 우리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민족적우수성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민족허무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 민족주의의식이 희박해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보적인 나라와 인민들이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 민족적자존심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정신원동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굴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력사의 반동들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해온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신념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신념을 가진 인민은 력사의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은 패배하고있다.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신심과 락판에 넘쳐 전진하는 인민은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을 발휘하여 자기 운명과 력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발전을 다그쳐나감에 주저않고 시대의 락오가 되고있다. 그러므로 자주성과 진보적발전을 지향하는 인민들은 민족적자존심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겨야 한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에, 자주의식이 강하고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이 높은 인민만이 가질수 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고 자주적발전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분발하여 떨쳐나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다같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갈려는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인민은 자기 민족의 존엄과 넓이 짓밟고 무시당하는것을 좋아할 인민도 없다.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기 위해 완강히 투쟁하는 인민에게는 자주적발전의 길이 열리고 민족부흥의 시대가 펼쳐진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적극 투쟁하면 국제적단결과 반대성을 강화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세계건설은 민족적자존심을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진보적인인민들의 즐거운 투쟁에 의해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본사기자**

내정간섭행위를 배격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이 이란은 《테러의 주요후원자》라더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느니 뭐니 한것과 관련하여 볼리비아에대항하여 모랄레스는 미국의 테러에 대해 말할 자격도,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도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세계화약의 언약본자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볼리비아는 주권국가로서 그 어떤 내정간섭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12월 이란대통령 라흐마니도 아흐마디네자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

들이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긴장하게 만들려고 회색계색을 쓰고 판별하여 그는 그것은 지난 시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것으로 볼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어떤 간섭책동도 이란인민의 립장을 변화시키거나 알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미국과 서방나라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미국은 《넌테보고서》에서 헬바라는 의연히 종교교분야에서 《우려》를 차이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헬바라는 신문은 《현실을 전면적,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존중은 헬바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대개 종교분야에서 이러한 진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헬바의 종교형편에 대해 말하려면 강요,

주관, 편견이 없이 전면성,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내정간섭적인 미국의 《넌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는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서방나라들의 부당한 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농산물 보조금을 계속 실시하고있고 그것과 함께 자기의 시장들에 발전도상나라들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는 발전도상나라 농업부문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꾸바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압력책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내정간섭, 자주권침해행위가 국제적규탄배격을 받고 있는것은 우당하다. **본사기자**

지역적통합과 협조를 위한 움직임

지역적통합과 협조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지역적통합과 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세계를 자주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일국세우시책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아프리카 각국은 구체적인 농업발전계획을 작성 및 실시하기로 2015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식량부족인구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식량부족난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대륙의 하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강화되고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기구들이 지역적인 통합과정을 다그치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남아메리카에서 두 지역의 일체화를 위한 움직임과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우리 아메리카인민들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인민우익협정》(알바) 실현구 수뇌자회의에서 알바가 보건, 교육, 무역, 에네르기, 식량안전 등 분야에서 진행된 사업협정이 총회되고 자기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경제적통합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 발표된 최종선언은 미국이 《마약밀매와 테러방지를 주축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에 대한 군사적수준을 강화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외국군사기지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두 지역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상원국들의 활동도 강화되고있다. 제 15차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수뇌자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지역적통합을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성명, 아세안 공동체로정도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만철조리사회 성원국들은 한 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적통합을 다그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수리아의 팔만고원을 비롯한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종식시키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압행위를 종지시키고 자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해 강조하였으며 최종공표니체를 채택하였다. 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일국세우책동을 짓부시고 지역의 통합을 실현하며 남남협조를 발전시켜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미국은 행동으로 조선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미국은 행동으로 조선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미국신문과 미국교수가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평화협정제결안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이에 조속히 응해나올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포보》 2일 부는 오바마행정부가 최근조기포함하였던 조선과의 관계정상화실현을 위한 그 어떤 외교적노력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해 까뻐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핵정식사고방식을 버리고 평화협정제결안에 응해나올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이 먼저

행위를 포기할것을 고집하면서 핵문제외에도 다른 조건부족을 제기함으로써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보다 악화시켰다. 미국은 응당 행동으로 조선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조선의 안전보장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미국은 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남조선과 일본에 방대한 무력을 주둔시키고있으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핵으로 위협하고있다. 결국 조선이 안전감을 느낄수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조선의 안전을 《신핵포기》는 국가의 번영을 포기하는것이다. 미국이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실시하면서 조선에만 《신핵포기》를 요구하는것은 리치

에도 어긋나는것이다. 미국이 실수를 버리지 않는 한 조선반도핵문제는 점점 더로연해질것이다. 미국의 대학교수 앤소니 더필리포는 1일 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행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의 6자회담북극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접근을 해왔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에서도 실질적인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그는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시에 《행동대행동》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미행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 튀르키예대통령 아흐메트 데비르가 5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가니스탄주둔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문제는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제는 해결은 아프가니스탄인민에게 달려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제건설 성과

경제건설 성과. 정부는 2011년까지 1만 세대이상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새 품종의 콩종자 육성. 르완다의 농업과학자들이 최근 15개 품종의 새 콩종자를 연구, 육성하였다. 이 콩종자들은 이전의 품들에 비해 탄저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면서 습한 고산지대에 잘 자라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나라에서 새로운 콩종자들을 널리 재배하도록 장려하고있다. **본사기자**

기업제 파산

기업제 파산. 일본 《도쿄 쇼쇼》 연구소는 8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에 전국적으로 1063개의 기업제파 또는 파산당하였다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제들이 지 빚은 8389억 900만엔에 달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중국상무부가 6일 미국의 닭고기투매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수출품에 10.5%까지의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조치는 나라의 닭고기생 산부문에 손해를 주고있는 미국의 닭고기투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데 따른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국제형사재판소의 처사를 규탄

국제형사재판소의 처사를 규탄. 나라들의 노력을 가로막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아프리카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아랍국가연맹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로 호소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신문사 해산 계속 발생

신문사 해산 계속 발생. 만민에서 A(H1N1)형 발열감기가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6일 이 나라 신문 《뉴 라이트 오브 만민》은 친

미군기지이설문제를 둘러싼 일미사이의 대립

미군기지이설문제를 둘러싼 일미사이의 대립. 미군기지이설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군기지이설문제를 제정도할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나감으로써 일미사이의 모순이 풀이되었다. 하도야마정권의 《반변》에 화가 난 미국이 원래의 계획대로 할것을 주장하면서 문제의 조기결락을 요구하였으나 일본당은 입사리 승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은 《하도야마가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4일 오기나와현 나고시에서 시정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결과 후엔마기지의 현재

제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온 후 본인이나미네가 새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를 두고 의신들은 후엔마기지가이설계획이 파탄되었것과 함께 일미관계가 보다 긴장해갈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나미네는 선거다음날인 25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취임후 우선 시의회에서 후엔마기지의 현재이설문제를 채택하도록 하며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여 실현시킬 립장을 표명하였다. 같은 날 일본상상 하도야마는 《선거결과와는 나고시 시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은 《하도야마가 오기나와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4일 오기나와현 나고시에서 시정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결과 후엔마기지의 현재

6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오기나와현내에서의 후엔마기지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참가자들은 후엔마기지를 오기나와는 물론 일본경내에서 당장 내보낼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 오기나와현 미야코지마시의회의는 시의



일본에서 미군기지 반대 집회